

호랑이, SK 상대 ‘리허설 곳’ 신종길 2타점 적시타·홍재호 끝내기 만루포 맥못춘 방망이 꿈틀… 연습경기서 9대 5 역전승

KIA 타이거즈가 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연습경기에서 홍재호의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앞세워 9-5로 짜릿한 역전극을 펼쳤다.

탄탄한 마운드로 챔피언 탈환을 노리는 KIA와 특유의 조직력으로 2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SK의 첫 대결이 벌어지면서 쌀쌀한 날씨에도 200여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자리를 지켰다.

마운드에서는 서재응의 노련미가 돋보였고, 타석에서는 만루홈런을 날린 홍재호가 주인공이 됐다. KIA의 ‘신종 엔진’ 신종길도 2타점 적시타를 터트리며 주전 자리 선점에 나섰다.

선발로 등판한 서재응은 3이닝 1피안타 1사구 무실점의 쾌투를 선보였다. 탈삼진도 2개를 잡아내는 등 안정된 제구력으로 SK 타자들을 상대하며 노련미를 과시했다.

4회부터 마운드를 넘겨받은 양현종은 제구 난조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1-1로 맞선 5회초 양현종이 연속 안타에 이어 김강민에게 3점포를 허용했다.

1-4로 뒤지던 7회말, 1사 1루에서 최고참 이종범의 2루타로 1사 2·3루가 됐다. 전날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카도쿠라를 상대로 투런 아치를 그렸던 신종길이 이승호를 상대로 중전안타를 터트리며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9회말 3-5 두 점차로 SK를 쫓던 KIA가 투수 전병두의 난조 속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1사에서 이준호·김상현이 연속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김주형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4-5, 컨트를 잡기에 실패한 전병두는 다시 연속해서 볼넷을 내쳤다. 전병두의 폭투까지 나오면서 KIA는 손쉽게 동점을 만든 뒤 1사 만루의 기회를 이어갔다.

이어 박기남의 대수비로 들어갔던 홍재호가 자신의 첫 타석에 섰다. 내야수 홍재호는 좌측 담장 넘어가는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날리며 9-5로 경기를 종료 시켰다.

엔트리 합류를 위해 테스트를 받고 있는 루키들도 이날 좋은 점수를 받았다.

2년차 좌완 심동섭은 조동화·박정권·이



KIA 내야수 홍재호가 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와의 연습경기에서 9회말 전병두를 상대로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날린 뒤 백인호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홈으로 향하고 있다.

호준을 범퇴로 막으며 7회를 책임졌고, 데뷔를 앞두고 있는 우안 홍건희는 8회 1사에서 볼넷을 내주기는 했지만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하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빠른 발로 눈길을 끌고 있는 외야수 루키 윤정우도 안타를 하나 추가했다.

시원한 홈런포로 귀국 후 연습경기에서 3연승을 달린 KIA는 제주도로 건너가 11일 넥센과 4번째 연습경기를 치른다. 12·13 일에는 넥센과의 시범경기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엽, 김태균과 첫 대결서 판정승

명예 회복에 나선 ‘거포’ 이승엽(35·오릭스 버펄로스)이 지바 롯데 4번 타자 김태균(29)과의 첫 타격 대결에서 승리했다.

이승엽은 9일 일본 오사가 교세라돔에서 열린 지바 롯데와의 시범경기에서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 몸에 맞는 공 1개를 얻어내고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인터리그 이후 처음으로 이승엽과 다시 만난 김태균은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에 볼넷 1개를 얻어냈을 뿐 두 차례 삼진에 그쳤다.

이날 경기에서는 오릭스가 3-1로 이겼다.

/연합뉴스

추신수 2안타 2타점 ‘역시 해결사’

왼쪽 팔꿈치 통증 탓에 훈련과 재활을 병행 중인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불꽃타를 터뜨리며 ‘주포’다운 활약을 펼쳤다. 추신수는 9일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3번 타자와 우익수로 출전, 3타수 2안타를 때리고 2타점을 거둬들였다.

팀은 4-16으로 크게 패했으나 사흘만에 출전한 추신수는 찬스에서 해결사로 맹활약했고 수비에서도 강한 어깨를 뽐내 부상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올 시즌 600만 관중시대

KIA 홈서 60만 도전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을 갈아치운 프로야구가 ‘600만 관중시대’에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9일 8개 구단의 2011년 관중 유치 목표를 발표했다. 구단별 목표치를 합산하면 올 시즌 프로야구의 관중 동원 목표는 663만 명이다.

이는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이 쓰여진 지난해(592만8626명)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로 프로야구는 사상 최초로 한 시즌 600만 관중 돌파와 4년 연속 500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쫓게 된다.

지난해 4강에서 탈락하며 43만6285명의 관중을 유치하는데 그쳤던 KIA는 올 시즌 막강 마운드로 거포 이범호의 영입으로 날개를 달고 지난해보다 37%늘어난 60만 명(경기당 9090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140만 관중돌파를 노린다. 경기당 2만896명을 유치해야 가능한 목표다 롯데는 4년 연속 100만 관중 유치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을 연고로 하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 그리고 SK 와이번스도 100만 관중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이스클라이밍 박희용 세계 정상 찍었다

국내 아이스클라이밍의 ‘간판’ 박희용(29·노스페이스)이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박희용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 키로프에서 열린 국제산악연맹(UIAA) 4차 월드컵에서 막심 토밀로프(러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박희용은 올 시즌 마지막 월드컵에서도 선전하면서 UIAA 랭킹 포인트 325점을 쌓아 토밀로프(300점)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지난 3년 동안 최강자로 군림하던 마르쿠스 벤들러(오스트리아)는 세계랭킹 3위로 밀렸다. 박희용은 유럽이 강세를 보이



는 아이스클라이밍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종합 챔피언에 등극했다.

그는 앞서 경북 청송에서 열린 올 시즌 1차 월드컵에서 준우승했고, 스위스 2차 월드컵에서 3위에 올랐으며 루마니아 3차 월드컵에서는 우승했다.

/연합뉴스



정다래 새 수영복 금빛물결 한번 더

7월 세계선수권 대회 준비

2010 광주우 아시아계인 여자 평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정다래(20·서울시청) 등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새 수영복<사진>을 입고 올해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대한수영연맹 후원 스포츠브랜드인 아래나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는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11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입을 새 수영복인 ‘파워스킨 레보플러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선수들의 체형을 고려해 특별 제작된 이 수영복은 불규칙한 표면을 줄이고 무봉제 디자인으로 착용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물의 저항력을 최소화하려고 허리, 엉덩이, 가슴 부분에는 새로 개발한 원단을 덧댔다.

이 제품은 국제수영연맹(FINA)의 승인을 획득했고, 출시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입혀 테스트했다.

현재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수영복을 입고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여수 출신으로 전남수영연맹 소속이던 정다래는 올 초 서울시청으로 옮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3년만의
대세일 30%
 3월 19일까지

1.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2. 160만원 상당 이태리 친환경 라텍스 무상증정 (300만원 이상 침대에 한함 180×200×25cm 대형사이즈)

화정동 아울렛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ITALY



ITALY



ITALY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홍스페이스 아울렛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 (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PACE
홍스페이스
 SINCE 1990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주)홍스페이스는 100% 이태리 친환경 안락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 ⇨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062-226-7567